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분과 회의록(2026년 4차)		담당	사무국장	실무위원장	대표위원장	
회의일시	2026. 5. 28.(목) 14:00~15:30	회의장소		안산시청 제3별관 대회의실		
분과명	장애인분과	작성자		임지혜		
참석자	총 분과원 15명 중 11명 참석(73.3%)		※ 전체 분과원 참석여부 O,× / 협의체 사무국 참석률 제외			
	이재선	안산시상록장애인복지관	O	김혜린	안산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O
	김보영	안산평화의집	O	김지민	안산시수어통역센터	O
	박정은	빛과동지장애인보호작업장	O	안재명	(사)명회원	O
	양수빈	안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	O	윤란	안산시장장애인복지관	O
	박연수	경기도장애인주간보호시설협회 안산지부	X	조우제	단원보건소 건강증진과 방문보건팀	O
	김선경	(사)경기장애인부모연대 안산지부	X	노수경	상록수보건소 건강증진과 방문보건팀	O
	차성화	국민연금공단 안산지사 장애인지원센터	O	김도희	안산단원경찰서 여성청소년과	X
	김용수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자립지원팀	X	추진희	안산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O
	장윤실	안산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O	임지혜	안산미래연구원	O
	배은형	안산시 복지정책과 지역복지팀	O	박민수	안산미래연구원	O
-	-	-	김지안	안산미래연구원	O	
안건	1. 제5기 사업 평가 결과에 대한 분과 검토 2. 제6기 계획 수립 방향에 대한 논의 3. 제6기 신규사업 후보 검토 4. 종합 합의 사항					
회의내용	※ 분과원 불참사유 - 경기도장애인주간보호시설협회 안산지부 박연수 : 업무 중복(사회복무요원 상반기 교육) - 경기장애인부모연대 안산지부 김선경 : 업무 중복(교육) -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자립지원팀 김용수 : 업무 중복(선거 일정) - 안산단원경찰서 김도희 : 업무 중복(내부 근무일정 변동)					
	1. 제5기 사업 평가 결과에 대한 분과 검토 □ I-4-2 장애인 권익옹호 상점 오소가게					
	구분	주요 내용				
	TF 검토 결과	· 오소가게는 장애인이 편견 없이 환영받으며 이용할 수 있는 동네 상점을 발굴·인증하는 사업으로, 복지관·시설이 아닌 시민의 일상 공간을 변화시키는 권익옹호 사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 2025년 8월 기준 누적 228개소가 인증되어 안산형 권익옹호 모델로 자리 잡았고, 지자체·민간기관·당사자가 함께 참여하는 실무협의 구조가 운영되고 있음. · 다만 인증 상점의 자격 유지, 사후관리, 권역별 균형 발굴, AAC 그림판과 오소가게에 대한 시민 인지도 제고 등 내실화 과제가 남아 있음. · 전담 인력 없이 협력기관이 본업과 병행하여 운영하는 구조이므로 지속적인 사후관리에 한계가 있음.				

구분	주요 내용
분과 보완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과에서는 오소가게가 안산시만의 선도적 사업이며, 장애인 당사자의 일상 접근성과 상점주 등 비장애 시민의 인식 개선에 의미가 있다는 점에 공감함. · 다만 제6기에서는 기존 사업을 그대로 유지하기보다, 오소가게를 출발점으로 장애친화 생활환경 조성으로 확장할 수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 “장애친화도시”는 범위가 넓어 오소가게 단일 사업으로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실제 실행 범위가 드러나는 명칭과 사업범위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현장 쟁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점 인증 확대만으로는 제6기 대표사업의 방향을 충분히 설명하기 어렵고, 자격 유지·정기 점검·상점주 간담회·AAC 활용 확대 등 내실화 과제가 함께 고려되어야 함. · 오소가게와 연결 가능한 물적 자원뿐 아니라 인적 안전망, 지역사회 자원 연계까지 포함하여 장애인이 생활권에서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방향이 논의됨. · 다만 사업 범위를 지나치게 넓히면 성과지표와 담당주체가 불명확해질 수 있으므로, 2차 TF에서 사업명·범위·성과지표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제6기 반영 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사업은 제6기 지속사업 후보로 반영하되, 단순 신규 인증 개소수 확대 중심이 아니라 운영 내실화와 생활권 접근성 개선 중심으로 재구성함. · 제6기에 포함할 경우 ① 기존 인증 상점 자격 유지 및 사후관리, ② AAC 활용 확대, ③ 공공기관·생활권 자원과의 연계, ④ 권역별 균형 발굴, ⑤ 장애친화 마을환경 조성 가능성 등을 중심으로 검토함. · 사업명은 “장애친화도시”처럼 과도하게 넓은 명칭보다, 오소가게의 성격과 실행 범위가 함께 드러나는 명칭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함.

□ I-4-6 장애인 가족을 위한 가사돌봄비 파견지원서비스 확대

구분	주요 내용
TF 검토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사업은 장애인 가족, 특히 주 돌봄자의 소진을 완화하고 장애인가구의 일상생활 유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필요성이 인정됨. · 다만 도비 40%, 시비 60%의 경기도 매칭 구조에 따라 운영되어 안산시가 단독으로 사업량을 확대하기 어렵고, 매년 유사한 모니터링 의견이 반복되더라도 실질적 확대나 구조 개선으로 이어지기 어려운 한계가 있음.
분과 보완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과에서는 사업의 필요성이 다시 강조됨. · 특히 활동지원급여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활동지원제도 신청·판정 절차 접근성이 낮은 장애인에게는 방문형 생활지원이 독립생활 준비와 지역사회 생활 유지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 제도 인지도가 낮아 이용자와 현장기관 모두 충분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독립을 준비하는 장애인에게 이러한 지원체계가 있다는 점을 지역사회에 더 알릴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제6기 반영 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사업은 필요성은 인정하되, 제6기 주요 세부사업으로 그대로 반영하기보다는 추가 검토 대상으로 정리함. · 향후 경기도에 사업량 확대를 지속 건의하거나, 안산시 자체적으로 청장년층 장애인·활동지원 사각지대·자립 준비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한 생활지원 보완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제6기 계획에는 현재 사업을 단독으로 반영하기보다 장애인 긴급돌봄·생활지원·틈새돌봄과 결합 가능한 다른 후보사업과 함께 검토함.

□ I-4-9 시설장애인 자립지원체계 구축

구분	주요 내용
TF 검토 결과	· 시설장애인 자립지원체계 구축은 탈시설·자립지원이라는 국가 정책 흐름에 맞추어 안산시가 선제적으로 대응해 온 사업으로, 자립지원자 발굴, 자립지원주택 운영, 민관협력 기반 지원체계 구축 등에서 성과가 있었음.
분과 확인 사항	· 본 사업이 국비 보조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제6기 안산시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자체 사회보장사업으로 담기 어렵다는 점이 공유됨. · 다만 시설보호에서 지원주택, 지역사회 정착으로 이어지는 자립경로 자체는 제6기에도 중요한 정책 방향으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점이 확인됨.
제6기 반영 방향	· 본 사업은 제6기 주요 세부사업 후보에서는 제외함. · 다만 자립 이후 사후관리, 지역사회 수용성 제고,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의 연계, 자립지원 선정 등은 후속 관심 과제로 관리함.

2. 제6기 계획 수립 방향에 대한 논의

-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제5기 사업을 단순히 계승하는 방식이 아니라, 사업의 성과와 한계, 모니터링 환류 가능성, 안산시 장애인복지 여건, 제6기 전략체계와의 적합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 공유됨.
- 장애인복지팀 TF 회의에서는 제6기 계획의 4대 주요 전략으로 ①인프라, ②생활안전, ③복지, ④일자리 전략이 공유되었고, 안산시는 등록장애인 비율이 5.4%로 경기도 평균 4.3%를 상회하며, 저소득·위기경험·고립가구 비율도 높은 도시 특성을 갖고 있다는 점이 논의됨.

핵심 이슈	주요 내용
장애친화 일상환경 조성	· 오소가게는 상점 인증사업을 넘어 장애인이 일상공간을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생활권 접근성 사업으로 재구성할 수 있음. · 다만 “장애친화도시”처럼 범위가 큰 개념은 사업 범위와 실행 가능성을 명확히 한 뒤 사용해야 함.
돌봄·생활지원 사각지대 대응	· 장애인 가족 가사돌봄이 사업은 필요성이 크지만 도비 매칭과 규모 한계가 있어 제6기 주요사업으로 그대로 반영하기에는 위험부담이 있음. · 활동지원 공백, 야간·주말 돌봄, 자립 준비 장애인 생활지원 등 틈새돌봄 관점의 신규 후보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음.
자립지원의 연속성	· 시설장애인 자립지원체계 구축 사업은 국비사업으로 전환되었으나, 자립 이후 지역사회 정착과 사후관리, 주거·돌봄·관계망 지원은 제6기 계획에서도 지속적으로 고려해야 함.
장애인 일자리의 재정의	· 단순 취업 알선이나 생산품 구매 확대만으로는 장애인 일자리 문제를 충분히 설명하기 어려움. · 근로 욕구, 근로능력, 직업 적응, 이동지원, 판로, 기업 수요처 개발, 경증·중증 장애인 지원 방식의 차이를 함께 고려해야 함.
성과관리 가능성	· 제6기 사업은 필요성이 크다는 이유만으로 선정하기보다, 4년간 지속가능성, 담당부서의 실적 관리 가능성, 민관협력 구조, 예산 안정성, 성과지표 설정 가능성을 함께 검토해야 함.

3. 제6기 신규사업 후보 검토

□ '이웃링크'를 활용한 틈새돌봄 체계 구축

구분	주요 내용
사업 취지	· 활동지원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시간대나 기존 공적 돌봄으로 충분히 대응하기 어려운 틈새 시간에, 지역사회 이웃활동가와 장애인을 연결하여 생활지원·돌봄을 보완하는 사업으로 검토됨.
분과 논의	· 회의에서는 '이웃링크' 앱을 개발하여 장애인에게 필요한 지역자원 정보를 제공하고, 이웃활동가를 모집·교육하여 저녁·주말 등 활동지원 공백 시간대에 틈새돌봄을 제공하는 구조가 설명됨. · 해당 사업은 경기복지재단 장애인 통합돌봄 공모사업과 연계되어 2026년 약 8천만 원 규모로 추진 중이며, 현재 안산시 거주 65세 미만 자체·뇌병변 심한 장애인 35명을 대상으로 하되 확대 가능성이 있는 사업으로 공유됨.
현장 쟁점	· 이웃활동가가 권리옹호 역할인지 돌봄 역할인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고, 회의에서는 돌봄의 역할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설명이 이루어짐. · 플랫폼 구축 이후 유지보수비, 활동비 지급 방식, 공모사업 종료 이후 시 예산 편성 가능성 등이 쟁점으로 논의됨.
검토 방향	· 본 사업은 제6기 신규사업 후보로 추가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다만 공모사업 종료 후 지속재원 확보, 대상자 확대 가능성, 이웃활동가 모집·교육·관리체계, 안전관리, 활동지원서비스와의 관계, 성과지표 설정 가능성을 확인한 후 제2차 TF에서 반영 여부를 판단함. · 성과지표는 단순 앱 구축 여부보다 매칭 건수, 이용자 수, 이웃활동가 활동 건수, 야간·주말 돌봄 이용 실적, 이용자 만족도 등을 중심으로 검토함.

□ 365쉼터

구분	주요 내용
사업 취지	· 장애인 보호자 부재, 긴급상황, 돌봄 공백 등에 대응하기 위한 긴급·일시 보호 또는 쉼터 기능의 사업으로 검토됨.
분과 논의	· 365쉼터가 도비 매칭 사업이며, 채용의 어려움으로 현재 1명으로 운영 중이라는 점을 확인함.
검토 방향	· 긴급돌봄·일시보호 측면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인력 확보와 운영 안정성 문제가 있어 현 단계에서 제6기 대표사업으로 반영하기에는 추가 검토가 필요함. · 제6기에는 틈새돌봄·긴급돌봄 체계와 연계해 보완 후보로 검토함.

□ 장애인일자리 통합지원서비스 및 장애인 일자리 관련 사업

구분	주요 내용
논의 배경	· 제6기 계획의 주요 전략 중 일자리 영역이 제시됨에 따라 장애인 일자리 관련 사업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가 논의됨.
분과 의견	· 안산시장애인일자리통합센터가 통합센터로서의 총괄 기능을 수행하기보다는 하나의 사업 수행기관처럼 운영되고 있다는 의견이 있었음. ·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확대 또는 구매담당자 교육이 제안될 수 있으나, 안산시 직업재활시설 매출 증가나 근로장애인 임금 향상으로 직접 연결되는지에 대해서는 우려가 제기됨. · 구매담당자 교육을 하더라도 공공기관이 필요로 하는 품목이 없으면 실제 구매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점도 논의됨.

구분	주요 내용
추가 쟁점	· 기업에서 요구하는 장애인 인력은 중증보다 경증 장애인인 경우가 많아, 직업 알선과 직업상담이 경증 장애인 중심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 근로 욕구가 있는 장애인에게는 근로능력과 무관하게 일할 권리가 보장되어야 하며, 단순 고용뿐 아니라 직업 적응, 일자리 유지, 이동지원, 근무환경 지원까지 넓게 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참고 사례	· 성남시의 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 버스 지원 사례가 언급되었으며, 직접적인 일자리 창출 사업은 아니더라도 근로장애인의 일자리 유지와 접근성을 높이는 복지서비스로 검토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검토 방향	· 장애인 일자리 사업은 추가 구체화가 필요한 후보 로 정리함. · 제6기 계획에는 단순 구매 확대나 교육사업으로 반영하기보다, 장애인 구직자와 기업 수요처 매칭, 직업재활시설 판로와 실제 매출 연계, 근로장애인 이동지원, 직무 적응·사후관리 등으로 사업 범위를 재정의할 필요가 있음 · 장애 유형이 다양한 만큼, 장애인의 일자리 관련 정책 또한 매우 세분화되어 진행되고 있으므로 좀 더 폭넓은 단위에서 사업을 검토해보기로 함

□ **최중증 발달장애인 돌봄 및 통합지원 관련 의견**

구분	주요 내용
논의 내용	· 안산 지역에 최중증 발달장애인 돌봄을 수행하는 기관이 3개 있고, 24시간 지원체계를 운영하는 기관도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 국가사업 성격이 있더라도 안산시가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장애인 통합지원 관점에서 검토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 다만 유사 사업과의 관계, 국비 전환 여부, 기존 시설장애인 자립지원체계 구축 사업과의 중복 가능성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논의됨.
검토 방향	· 국가사업 또는 광역사업과의 관계를 고려해야 하고, 타 지자체의 사업 실시 여부 또한 확인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제6기 주요사업으로 즉시 반영하기보다는 추가 검토를 진행하기로 함. · 전체 지자체가 진행하는 사업이 아닐 경우, 추가적으로 기존 사업과의 중복성, 안산시 자체 관리 가능성, 성과지표 설정 가능성도 후속 검토 하여 제6기 사업 편성 여부를 논의하기로 함.

4. 종합 합의 사항

구분	사업명	분과회의 정리	제6기 반영 방향
제5기 사업	1-4-2 장애인 권익옹호 상점 오소가게	안산시만의 선도적 권익옹호 사업으로 의미가 크며, 상점주 등 비장애 시민의 인식 개선에도 기여함. 제6기에서는 단순 인증 확대보다 자격 유지·사후관리·AAC 확장·권역 균형 발굴 등 방향 정리가 필요함.	지속 후보/추가 구체화. 내실화 중심으로 갈지, 장애인친화 마을환경 등 상위 사업으로 확장할지 제2차 TF에서 재검토.
제5기 사업	1-4-6 장애인 가족을 위한 가사돌봄미 파견지원서비스 확대	자립 준비 장애인, 활동지원 사각지대 장애인에게 필요한 생활지원 사업이라는 필요성은 인정됨. 다만 사업 규모가 작고 도비 매칭 구조의 영향을 크게 받아 제6기 주요사업으로 그대로 가져가기에는 위험부담이 있음.	추가 검토. 사업 자체는 지속 관심 과제로 두되, 제6기에는 장애인 긴급돌봄· 틈새돌봄 관련 다른 후보사업과 함께 검토.

구분	사업명	분과회의 정리	제6기 반영 방향
제5기 사업	1-4-9 시설장애인 자립지원체계 구축	탈시설·자립지원 흐름에서 의미 있는 사업이나, 국비사업으로 전환되어 지역사회보장계획 자체사업으로 편입하기 어려움.	종결.
신규 후보	'이웃링크'를 활용한 틈새돌봄 체계 구축	활동지원서비스 공백 시간대의 돌봄 보완, 이웃활동가 매칭, 지역자원 정보 제공 측면에서 제6기 방향과 연계 가능성이 있음.	신규 후보 검토. 공모사업 종료 후 지속재원, 대상 확대, 이웃활동가 관리체계, 성과지표 등 확인 필요.
신규 후보	365쉼터	긴급돌봄·일시보호 측면의 필요성은 있으나, 도비 매칭과 인력 확보 문제 등 운영 안정성 확인이 필요함.	후순위 검토. 틈새돌봄·긴급돌봄 체계와 연계해 보완 후보로 검토.
신규 후보	장애인일자리 통합지원서비스 및 장애인 일자리 관련 사업	통합센터 기능, 생산물 구매 확대, 직업재활시설 판로, 경증·중증 장애인 취업지원 방식 등 여러 쟁점이 제기됨. 단순 구매담당자 교육만으로는 성과가 불명확하다는 의견이 있음.	추가 검토. 장애인 일자리 접근성, 기업 매칭, 직업 적응, 근로장애인 이동지원 등으로 사업 범위 재정의 필요.
신규 후보	최중증 발달장애인 돌봄 및 통합지원	안산시가 여러 기관을 통해 최중증 발달장애인 돌봄을 수행하고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후속 검토. 국가·광역사업과의 관계, 안산시 자체 관리 가능성, 성과지표 설정 가능성 확인.

5. 향후 계획

- 본 장애인분과 회의에서 제시된 의견은 제2차 장애인복지팀 TF 회의에 공유하여, 제6기 지속·신규 사업 후보군 확정 및 사업별 추진 방향·성과지표 검토에 반영함.

차기회의

- ◎ 일시 : 26. 7. 2.(목) 14:00
- ◎ 장소 : 안산시청 제3별관 대회의실
- ◎ 안건 : 제6기 지속·신규 사업 후보군 확정, 사업별 추진 방향 및 성과지표안 논의, 우측 발전전략 과업 영역 검토 등

진행사진

